

山林經營會報

發行人：韓 榮 錫
 主 幹：崔 東 均
 發行處：韓國山林經營者協會
 住 所：서울特別市 城北區 安岩洞
 5街 134 - 58
 電 話：923 - 4372

本會 慶北支部 定期總會

새 支部長에 柳仁熙 氏 選任



本會 韓會長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圓內는 새로 選任된 柳仁熙 支部長

本會 慶北支部는 지난 5.10 현지 榮州에 있는 支部 會議室에서 定期總會를 갖고 '86 豫算 決算 報告와 '87 豫算案을 심의 가결하고 任期 滿了에 따른 支部 任員을 새로이 選出하였는데 새로운 支部長에는 柳仁熙 (春陽, 太白새 마을금고 이사장) 氏를 選任하였다.

이 자리에는 本會 韓榮錫會長이 參席, 激勵辭를 通하여 그동안 우리 山林經營人들은 오늘날과 같이 山林綠化가 이룩되기까지는 많은 犧牲이 뒤따랐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政府가 山地資源化 10箇年計劃을 樹立中에 있으므로 그동안 치렀던 苦難의 代價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 政策樹立이 있어야 된다고 促求하였다.

이에 앞서 韓會長은 그동안 初創期의 여러 어려운 與件을 무릅쓰고 支部 發展에 모두 협심 노력하여 주신 全支部 會員에게 感謝한다고 致賀하면서 退任하는 柳寧默 前支部長에게는 功勞牌을 贈呈하였다.

資源造成計劃은 그간의 忍苦補償받도록 — 當局 山主 — 끝까지 참고 가꾸워 보람찾도록

會長 韓 榮 錫

人類는 樹林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國家 國民의 精神의 安定이나 國家의 産業經濟의 또는 生活文化的 發展도 山林의 아름다운 景觀과 壯嚴한 樹木의 蓄積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良質의 水資源을 豊富하게 確保 活用함에 있어서나, 國民體力 向上과 休養을 위해서나, 또한 旺盛한 林産資源生産과 함께 國民을 安樂하게 生活시킬 수 있는 등 山林盛衰는 곧 國力消長에 直結되고 있음을 우리는 歷史上으로나 現實的으로 지켜 보고 있는 바입니다.

6.25 動亂 直后 山林이 荒廢되어 岩石과 하얀 모래山이 平野를 둘러 쌓아 荒涼하기 그지없었고 天然災害가 끊임없이 몰아 닥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사람다운 생활을 못해 왔습니다. 모두가 가난했고 거짓말이요, 부끄러운 모습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山林綠化가 成功되어 가고 天然災害가 줄어들어 가며 山林土壤이 肥沃하여져 감과 동시에 産業이 發展되어 가고, 輸出立國의 意志가 鞏固하여 졌으며, 先進國隊列 문턱에 다다랐고, 後進國들의 羨望의 對象이 되었으며 일부 先進國의 警戒線 對象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高度成長가운데 國民生活은 向上되고 愛國心이 우러러 나오며 優越國民으로의 矜持아래 正義와 새로운 文化創造를 追求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現下 世界情勢는 世界經濟의 不均衡과 主宗 先進國마저 國際收支 惡化 慢性化로 國際交易上 貿易戰爭이라고 까지 極言되는 不安定時代가 招來되어 우리의 雄飛도 安逸할 수 마는 없는 不安마저 일고 있음이 冷嚴한 現實입니다.

友邦美國이 우리에게 知的所有權 保護主張이나 汎經濟市場開放壓力, 農産物輸入增大要求와 美國內 保護貿易論 擡頭등은 우리의 對美黑字貿易을 어렵게 죄여 가고 있으며, 한편 對日依存 貿易逆調現狀은 日本이 是正의 誠意를 보이지 않으므로써 對美黑字貿易遞減 對日赤字貿易下向의 努力은 극히 難題로서 克服하기 힘든 벽입니다.

이러한 與件下에서 우리 農山村이 겪어야 할 壓力은 農畜産物의 生産費補償의 適正價格 形成難, 木材輸入調節 不可能등 農林行政의 어려움에서 農山村所得惡化가 加重되어 農山村에 不安이 더욱 커질 것이며 農民의 離農現象이 더욱 增加되고 山村마을 일 수록 空洞化가 부채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對策方案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어려울 때 일 수록 農業, 林業의 恒久的安定, 採算性を 確保하여 줄 수 있는 基盤施設擴充, 改良 改善을 통하여 農民에게 農業所得대신 就勞事業으로 農業所得이상의 收入을 確保시켜 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政府에서는 用意周到한 對應策을 講究할 것으로서 農工團地造成 擴大에 의한 工業農村進出으로 農民의 工業就業 所得增大와 農耕地改良에 의한 營農機械化, 水利安全化, 畜産發展, 農家副業을 多角도로 開發獎勵해 나갈 것이며 農村福祉向上에 注力할 것입니다.

그러나 農山村安定의 巨視的 眼目으로서 林業人이 생각하는 바로서는 山林의 올바른 經營이 있어야 理想的인 國家安定의 農山村이 形成되며 國家永遠의 自彊經濟의 安定像을 構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水資源確保나 國土保全上의 土砂流出防止, 天然災害防禦의 完全은 山林充實에 달려 있기 때문이며, 山林은 木材資源과 食糧(種實, 버섯, 벌꿀, 林間畜産등), 燃料, 醫化學物質 기타 많은 有用資源을 無限大하게 生産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重大大한 山林이 現在 비록 綠化成功은 되었다 하더라도 資源上으로는 그지없이 부실하며 우리나라 全分野 發展에서 가장 落后되어 있습니다. 모든 事物에는 順理를 따라야 하는 바 우리는 山林이 미치는 順理를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서 우리는 山林建設을 急速히 서두려야 한다고 主張하는 바 먼저 先行돼야 할 것은 山間僻地에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四通八達의 道路網이 開設돼야 하며 果敢한 林道開發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山林經營에 國家財政 擴大와 山林稅制支援 改善이 있어야 都市資本이 많이 農山村에 流入되어 農民所得向上 事業이 劃期的으로 이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山林經營人들은 山林綠化가 成功되기 까지 많은 犧牲을 치러왔습니다.

그러나 國家經綸에 있어 山林行政은 너무나 重大하고 또 現世態가 不可避的으로 山地資源化 時代에 접어들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彷徨과 苦難의 계속만은 아닐 것이며 愛國精誠에 보람찬 代價를 얻을 時代가 돌아 올 것임을 確信합니다. 때마침 政府가 山地資源化 10箇年計劃을 樹立中에 있으므로 우리가 歡喜를 할 좋은 計劃이 成案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山林經營未來像을 考察해 보면 量的經營을 質的經營으로, 長期樹單純經營을 林産物加工經營과 山林附帶産業 複合經營으로, 觀光開發과 休養施設, 林間畜産등 兼業이 있어야 山林經營充實을 期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世襲林業이 家業으로 連綿하게 傳承되도록 圖謀해 나가야 國家發展은 勿論 우리는 우리 世代의 勞苦의 값을 남길 것입니다.

石材業務取扱部署機構補強 — 山林廳 — — 技術人力養成, 첨단機資材도 確保를 —

山林廳은 지난 5.6자로 林政局 利用課에 石材業務를 專擔할 技術人力을 補強키로 하고 農林技佐 2名, 技士 2名, 研究士 1名등을 配置하고 石材産業 育成을 위한 業務를 專擔케 하였다.

이는 山林施策의 方向이 종래의 綠化에서 資源 造成 利用開發의 兩面的인 政策으로 轉換함에 따라 石材産業의 育成策이 急先務로 대두되었고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뒷받침 하기 위한 조치인 것인데 때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다행한 일이며 行政需要뿐만 아니라 研究機關에서의 技術人力 養成과 함께 첨단 科學 장비를 갖추게 하여 技術開發을 도모하여 民間 企業에 앞서 技術普及을 先導하여야 할 것이다.

林木伐採禁止令 — 山林廳 — 間伐등 被害木 伐採는 除外

山林廳은 지난 4.20 부터 전국적으로 林木伐採를 전면 禁止키로 하고 각 시도에 지시하는 한편 고시를 통하여 이를 발표하였다.

이는 산림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한것인데 지난해의 월동기 이상 난동으로 인한 幹木 소비가 현저히 감소되었고, 솔일 흑과리등 被害木 벌채가 증가되어 생산된 圓木이 山元에 장기 堆積되어 재질의 저하는 물론, 木材價格의 하락과 流通秩序가 문란함에 따라 산주의 산림경영의욕 상실을 막기 위한 잠정적으로 취하여진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撫育을 위한 間伐이나 솔일 흑과리등 被害木 伐採와 他法令에 의한 초지 조성, 개간 또는 도시계획등을 위한 지장木 벌채는 제외키로 하였다.

病害蟲 防除에 全行政力 集注토록

〈 防除 期間 設定 : 8 月 末 까지 〉

山林廳은 지난 4.30 각 시도 및 영림서 산림병해충 防除 擔當官 會議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정채진 산림청장은 國民植樹가 온 國民의 積極적인 參與와 협조로 4만8천ha에 1억2천3백만본의 나무를 계획량 이상으로 심어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밝히고 이제부터는 山林病害蟲 防除로 轉換하여 그동안 애써 심고 가꾼 山林을 보호해 나가는데 全력을 다하라고 지시하였다.

山林經營意慾 현저히 低下

{ 造林대상지 있어도 안하겠다 25%, 하겠다는 40%뿐 }
{ 育林하겠다 50%, 投資能力없어 못한다 38% }

本會는 지난 3월에 山林經營에 관한 設問 20개 문항을 작성하고 全國의 會員 480명을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실시하였던 바, 그중 18.5%에 불과한 89名만이 응답하여 왔다.

이는 本會가 작년에 이어 두번째 실시하는 調査인데 응답율이 매우 저조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어쨌든 우리는 이를 집계 분석하여 關係當局에도 通報하고 공표하는 바이니 山林當局은 시책반영에 參考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 現在 所有하고 있는 山은 어떤 方法으로 取得하였는가? 라는 문항에서 상속 12.5%, 本人이 직접매입이 55.8%, 상속과 本人이 一部買入이 14.4%, 대부분 분수림도 12.5%나 되었다. 이는 작년에도 유사한 문항이 있었는데 응답내용도 대체로 비슷하였음을 재 확인한 셈이다.
- 現在 所有하고 계신 林野는 직접 本人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에서 내 명의로 되어 있다가 82.8% (72名), 실질적으로 내 소유이지만 내 명의로 되어 있지는 않다가 17.2% (15名)이다. 내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단 2명만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문제되어 라고 대답한 자가 각각 1名, 상속세 때문이라고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나머지 13名은 기히 買入당시 아들명의로 구입하였거나 理由가 불분명한 其他라고 하였다. 그러나 과거 70年代 1,2次에 걸쳐 특례법조치에 따라 이미 명의를 정리해 놓았고, 앞으로는 이러한 특례조치의 기회가 또다시 있을것 같지가 않으므로 經營林地에는 대폭적인 세제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別項으로 希望을 표시한자 數가 87名중 35.6%에 해당하는 31名에 達하고 있다.
- 造林을 着手하게된 동기를 묻는 質問에 經營收益을 얻고자가 역시 68.5%, 情緒生活과 山을 가꾸는 보람에서가 22.5%로 모두 91%가 山林經營意志를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속받은 林野를 버려둘 수가 없어서 6.7%, 기타 2.3%로 9%가 별 관심없는 造林事業에 着手한것으로 나타났다.

- 귀하가 所有하고 있는 山林內의 주 수종은? 에서 人工造林地에서는 낙엽송 32.2%, 잣나무 23.2%, 리기다 11.1%, 편백, 밤나무, 삼나무, 현사시등 기타 13개 수종순으로 되어 있어 조림수종이 몇가지로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天然林에서는 소나무류 40.6%, 활참목 33.4%, 참나무류 26.0%였다. 물론, 이 수치는 소유규모가 아닌 소유주종수이나 과거 造林이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등 몇가지 수종에 국한되어 병충해등 어떤 재해 발생시에 단순림으로서의 취약성에 대한 대책이 문제이며, 앞으로는 조림수종의 다양화를 기하는 시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 所有山林에 대한 育林作業은 山만 가지고 있었지 育林作業은 하지 않았다는 단 1.2%에 불과하고, 98.8%의 거의 100%에 가까운 數가 과거에는 일부나마 育林을 하여온 것으로 나타나 山林經營意志는 대단히 높게 나타났으나 금년도 귀하의 育林事業計劃을 묻는 別項의 質問에서는 당장은 소득이 없어도 希望을 갖고 하겠다는 50%에 불과하고 育林할 對象地가 없다는 11.9%, 育林할 對象地는 있어도 投資能力이 없어 못하겠다는 38.1%나 되어 투자의욕이 점차 식어가고 있는 것이 여실하며, 政府의 재정적 지원이 시급함을 들어내고 있다.
- 과거 실행한 育林作業의 재원을 묻는 질문에 순 自力으로만 하였다가 64.6%, 일부 국고보조로 하였다가 35.4%에 불과하였다.
 今後에는 많은 投資지원이 政策的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政府의 자원화 시책도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 그동안 벌채를 하여 所得이 있었는지? 에 대하여 71명의 應答者중 간벌소득은 있었다 46.5% 간벌, 주벌 모두 所得을 보았다 33.0%, 나머지 15.5%가 所得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여서 실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所得을 다소라도 보아온 사람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總應答者 89名 중에서도 本項에는 應答自體를 하지 않은 數가 18名이나되니, 이 18名도 所得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쪽이 타당할 것 같으며 이를 계산하면 32.9%가 전연 所得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금년도 造林計劃을 묻는 質問에 造林할 對象地가 없다 34.1%, 造林할 對象地는 있어도 안 하겠다 25.0%나 되므로 오늘날의 山林政策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우며, 造林을 하겠다는 40.9%로 작년도의 유사한 質問에 38.5%에 비하여 다소 增加한 추세이지만 이것으로 자위하기에는 어려운 수치이다.

造林樹種 多樣化 施策 있어야

또, 造林을 하겠다는 사람 중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낙엽송 44.4%, 잣나무 33.3%로 두 수종이 77.7%로 대종을 이루고 있어 이는 한 두가지 특종수종에만 치우치고 앞

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병충해등 어떤 재해를 당했을 경우를 생각하여 결코 바람직스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우량수종의 육종개발에 좀더 힘을 기울이는 한편, 현재의 政府 21대 권장 수종중에서 만이라도 좀더 다양하게 造林이 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는 시책이 있어야할 것 같다.

山林施業에 제일 큰 장애요인은 資金, 節次複雜 山林公務員의 資質도 問題

- 귀하의 所有山林에 적절한 山林事業을 하고자할때 장애요인이 큰 것부터 우선순위대로 번호를 붙이도록한 다음 5개 문항에 대하여 자금이 없다는 1번으로한 사람은 63명의 應答者중 36.5%가, 작업비의 국고보조 없이는 채산성이 안 맞아 못하고 있다에 문제점1번으로한 사람은 69명의 應答者중 26%가, 두번째 요인으로 제시한 사람은 29%로 역시 자금쪽이 문제점이 제일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고,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를 첫째 장애요인으로 제시한 사람은 54명 應答者중 22.2%, 동 문항을 두번째 장애요인으로 제시한 사람은 20.4%로 평소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부르짖던 소리가 그대로 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山林施策에 첫번째 項目—木材價格의 適正線유지로 채산성 갈구

- 山林經營을 위한 시책8개항목을 제시하고 비중이 크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우선순위대로 번호를 쓰도록 한 바 목재가격의 적정선 유지에 1번으로 표기한 사람이 76명의 應答者중 31.6%, 같은 항목에 2번으로 표기한 사람이 19.7%로 모두 합하면 51.3%로 과반수 이상이 價格의 적정유지를 최우선으로한, 결국은 채산성을 希望하고 있고 이와같이 각 항목에 1번과 2번으로 표시한 것만을 합하여 분석하여 보면 各種 事業에 정부보조 및 融資擴大(재정지원)를 우선순위 1,2번으로한 사람이 應答者중 47명으로 57.3%의 과반수 이상이 역시 재정적인 쪽에 비중을 크게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이 事業의 자율화에 비중을 크게 본 사람이 35.6%, 임도시설이 28.4%로 평소 사업의 자율화를 갈구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아진다.

그 외에 세제혜택, 專門作業團 조직의 활용, 機械化推進, 技術指導 強化의 順이다.

이상으로 보아 價格의 적정선 유지와 사업비보조로 채산성을 갈망하며, 사업도 규제로부터 자율화를 갈망하고 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고 요약할 수 있다.

- 임도시설에 관하여 하고 싶어도 정부보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가 47.6%, 당장은 計劃이 없다가 29.2%, 금년중 하겠다가 23.2%다. 금년중 하겠다는 사람 30名중 56.7%(17名)가 정부보조로, 나머지 43.3%(13名)가 순 自力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앞의 정부보조 혜택을 希望하는 47.6%와 순 自力으로 시행하는 23.2%를 합하면 70.8%가 임도시설 의지를 強하게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나 임도설비 등을 감안할때 순自力 시설만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政府의 과감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

○ 山林事業의 정부보조에 대하여 과거 보조를 받아 실행한 적이 있다 51.8%, 보조제도가 있는것은 알고는 있으나 받아 본 사실이 없다가 41.1%, 보조제도가 있는것조차 모르고 있다도 7.1% 되었다. 應答者중 과반수 이상이 일부나마 정부보조 혜택을 받았던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山林세제 部門을 알기위하여 최근 5년내에 세금을 納付한 사실이 있는가? 에서 總 69名의 응답자 가운데 소득세 23.2%, 법인세 4.3%, 양도소득세 8.7%, 농지세 40.6%, 기타 23.2%로 세금을 내고 있으며, 기타는 주로 재산세, 특별부과세, 방위세 등이다.

○ 상속세에 대하여 최근 5年内에 상속세를 낸 사실이 있는가? 에서 49名만이 應答한 가운데 48名이 낸 사실이 없다라고 하였고 단1명만이 상속세는 다른 재산과 함께 부과되므로 山林部分만은 얼마였는지 별도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상속세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상속세를 納付할 事由가 發生치 않았던 理由가 대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상속이 되었으면서도 상속세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는 단 1名도 없었다.

○ 산림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도 최근 5년내에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가? 에서 총 56명만이 應答한 가운데 8명(14.3%)이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48명(85.7%)이 없다고 하였고 納付하지 않은 48명중 45명(93.7%)이 納付할 사유가 發生치 않았다고 하였고 나머지 3명(6.3%)이 실질적으로 증여 또는 양도된 것이나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명의 이전을 못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이는 앞서 別項으로 기히 언급이 되었지만 과거 70년대에 두차례에 걸쳐 특례법 적용을 받아 명의정리를 해 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세금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치 않았지만 금후에는 대책이 의당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사유림의 開發投資促進을 위해서 세제상의 지원방법에 대하여 林野取得, 造林, 育林등 投資段階에서의 세제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다. 49.3%, 벌채등 소득이 發生했을 때 세제감면조치가 효과적이다 35.3%, 잘 모르겠다도 15.3%였다.

○ 현행 산림개발기금의 融資制度에 대하여 보다 改善되어야 한다 26.4%, 山林事業은 회임기간이 길고 중간수입이 없으므로 이자율을 현행 5.5%보다 引下하는 것이 좋다 54.7%로 모두 81.1%가 改善을 希望하고 있고 山林開發에 必要한 자금 지원제도가 있는 것 조차 모르고 있다도 15.1%, 현행 5.5%의 利子率은 다른 금리에 비하여 낮은편이므로 적절하다가 3.8%였다.

이는 5.5%의 利子率, 그 절대치는 높은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山林에서의 所得이

5.5 %以上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에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더 원천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 임업후계자 육성과 관련하여 임업후계자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90.1 %, 제도적으로 育成할 必要는 없다 9.9 %로 대부분의 산주가 제도적인 育成을 希望하고 있다.
- 임업후계자의 業種別 範圍는 林業만을 專業으로 할 사람이어야 한다 32.5 %, 農業 또는 畜産業을 하면서 林業도 兼業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도 후계자로 育成해야 한다가 67.5 %로 대부분의 山主가 兼業을 하는 사람이라도 임업후계자는 무방하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 임업후계자 육성 대상자에 대하여는 山主의 아들 (林野를 상속받을 사람) 이어야 한다 43.4 %, 山主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農山村에 살고 있으면서 山林經營에 뜻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면 된다가 56.6 %로 임업후계자는 꼭 山林所有를 전제로 하지는 않고 있음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임업후계자를 선발할때 연령은 제한할 必要가 없다 79.8 %로 우세하고 연령을 제한 하여야 한다가 20.2 %인데 연령을 제한하여야 한다고한 사람은 30 - 40대 미만으로 의사를 표시한 것이 대종 (64.7 %) 을 이루고 있다.
- 임업후계자를 효과적으로 育成하는데는 (1) 후계자는 잘 선발해야 한다. (2) 후계자가 林野를 상속받거나 또는 林野를 買入할때 상속세등 세금을 감면해 주어야 한다. (3) 造林 育林등에 所要되는 山林事業費를 政府에서 보조 또는 장기저리 融資해 주어야 한다. (4) 후계자에게 山林經營에 必要한 技術教育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라는 4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우선순위로 번호를 기재토록 한 바, (1) 항을 제일 우선순위로 한 사람은 총응답자 64명 가운데 27명인 42.2 %가 (2) 항 세금을 감면해 주어야 한가를 우선순위 제1로한 응답자는 73명 가운데 15명인 20.6 %가 (3) 항 사업비를 보조지원해야 된다는 제1로한 응답자는 78명 가운데 22명인 28.2 %가, (4) 항 技術教育을 우선순위 1번이라고 한 응답자는 총 71명중 1명에 불과하다. 이는 教育에 앞서 후계자를 잘 선발하여 세제혜택과 재정적지원을 우선 갈망하고 있음이 여실한 것으로 풀이되고 현시황을 잘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 임업후계자에게 政府에서 지원해야할 대상사업 6개항목을 제시한 바 造林育林事業費 지원이 30.2 %로 가장 비중이 높고 임도시설비 지원이 22.0 %, 임야구입비 17.6 %, 山林事業用 機械裝備 購入費 지원이 13.1 %, 其他 17.1 % 순이다.

收支안맞어도 자식에 상속, 林業後繼者로 育成 — 83%

- 以上の 여러가지 사항을 參考할 때 本人의 경우는 내 소유임야를 자식에게 상속하여 임업후계자로 育成하겠다 83.1 %로 단연 압도적이며, 상속할 자식이 없어 때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매각

할 計劃이다 9.1 %, 다른 사람 (단체) 에게 증여 또는 양도할 생각이다 7.8 %다.

이는 그동안 山林에서의 所得이 별반 없었어도 장래의 希望을 생각하였거나, 비록 所得이 없었을 지라도 꼭 所得만을 생각지 않고 山林을 가꾸는 보람은 역시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는앞서 造林을 着手하게된 동기를 묻는 문항에서 처음부터 “ 情緒生活과 山을 가꾸는 보람에서 ”가 22.5 %나 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산불등 산림재해 보험제도에 대하여 산림재해에 대한 보험제도가 시급하다가 36.3 %, 山林에서의 所得이 전혀없는 실정이나 保險料만 納付하기란 困難하다 21.6 %, 保險料를 일부 보조형식이라면 가입하겠다 42.1 %로 보험제도 시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다.

**林業後繼者 育成은 財政支援만으로는 안돼, 與件成熟안된
財政支援은 債務者만 만들뿐, 收支맞으면 自動적으로 育成돼**

山林事業 全般에 關하여 政府에 건의할 事項은 ?

- 木材價格의 적정선 유지
- 輸入木材 調節로 國內山主 保護
- 輸入木材에 부가세 — 재원확보 — 임업투자
적정가격 유지
- 山林開發資金 利率率 3 %로 引下
- 山林事業에 節次簡素化 — 公務員의 비리 요인 — 允認하지 않고 친절한 公務員象 정립
- 분묘지정리 — 집단화, 공동묘지화
- 토석채취허가절차 간소화
- 적지적수의 經濟的 高級化樹種 조림권장
- 보조 및 融資金의 획기적 확대
- 상속세, 증여세보다는 재산세 면세를
- 山林公務員의 자질개선 — 부정부패 — 의욕상실
- 시업의 自律化, • 밤나무 造林地 농지세면제를 • 임도시설 보조사업량 확대를
- 독립가육성 지원시책은 탁상 공념불편 • 국유림 조림대부지 당초계약대로 양도를
- 山林開發基金 利率拂入이 이사등으로 1年以上 연체되면 미불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무는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하여 20 %以上 연체이자를 가산
- 산조는 농협과 같이 여신업무를 취급하고 각종 검사업무는 민간 또는 단체에 위임.
- 의무조림자, 부재산주 조림지 관리소홀 — 산림계와 분수계약

- 산림행정 - 일관성 결여 • 밤 생산가격 적정선 유지 • 산림조합장은 希望독립가 우선
- 산림사업비예산 획기적 확대 • 임도시절보조는 완성될때까지 지원
- 1년만 지원하고 다음에 연계가 안됨 - 임도로서 실효성 상실

【결 언】

금번 設問書는 全國의 本會 會員 48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것이나, 18.5%에 불과한 89名만이 응답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本會가 昨年에 이어 두번째 實施하는 調査인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시기적으로 대단히 바빴던 3월말에 實施를 하였고, 昨年에는 무기명으로 應答토록 하였던 것을 금회에는 기명으로 요구를 하였으며, 問項 內容 自體도 좀 까다로웠고 서술식의 記載要求 問項도 있었을 뿐만아니라, 協會活動이 너무나 未弱하고 政府의 山林施策도 만족스럽지 못함에 따라 內面的인 心理的 거부반응등, 會員들의 關心을 불러 일으킬 만한 동기가 되지 못하고, 매년“設問調査만 實施하였지 아무 實效가 없다.”라는 心理的 要因마저 作用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協會는 이를 反省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계속 會員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앞장 설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以上の 問項集計한 것을 다시 크게 몇가지로 要約해 보면 造林樹種의 多樣化가 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木材價格등의 적정선유지와 획기적인 山林豫算의 증배로 各種 山林事業에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어 造林 및 育林의욕을 고취시켜 나가야 하겠다.

또 재정적 뒷받침 못지않게 이와 병행해서 규제위주에서 과감한 자율사업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을 바라고 있으며 일선의 일부 山林公務員들의 군림하는 자세에서 奉仕精神을 발휘하는 資質改善을 強力히 바라고 있다.

세제면에서도 現在로서는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생각보다는 크게 問題視는 되지 않는 것으로 集計되었지만 山林經營專門家들은 山林稅制를 重視하고 改善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반면에 일반 造林家들은 일반적으로 의욕이 상실되었고 稅制에 關하여는 깊은 관심을 헤아리지 않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는 쪽이 오히려 타당할 것 같다. 그러므로 향후 林業의 特殊性으로 보아 세습임업으로 유도되기 위하여는 상속세등 세제상의 혜택이 의당 따라야 될 것이며, 임업후계자 양성과 關聯하여는 各種 세제상의 혜택과 재정적 지원을 必要로 하고는 있으나 여기에 걱정스러운 것은 다른 여건의 성숙됨이 없이 단순한 약간의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一般 農業後繼者 양성을 하려다 농업채무자를 政府가 만들었드시 임업채무자를 政府가 만들어주는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林業界消息

- 鄭採鎮 山林廳長은 지난 13日 서울대를 비롯 全國大學 林學科 教授 70여명을 초청, 懇談會를 갖고 광릉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을 함께 돌아 왔다.
- 金演表 林業試驗場長은 지난 5.11. 林業試驗場 會議室에서 지난 4.4. 개관된 산림박물관과 수목원 造成에 功이 많았던 민간인 유공자 金漢泰 (本會 副會長, 大韓特殊木材 社長) 氏 外 10名에 感謝牌 傳達.

會 員 動 靜

- 本會 指導委員 鄭時和 時和産業 社長은 지난 2.17~3.6까지 대만, 홍콩등을 시찰하고 귀국
- 本會 理事 金基運 草堂藥品 會長은 지난 4.13~4.25까지 草堂藥品 핸드볼팀을 이끌고 일본, 대만, 홍콩의 초청을 받아 국제친선대회에 참가한 바 있었는데 전승을 올렸다고
- 本會 理事 權五振 西海開發 社長은 지난 4.15~4.28까지 산림자원조사등 업무차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고 귀국

住所 및 電話番號 變更

- 本會 理事 鄭海麟 盛昌林園開發 代表理事는 지난 4.1 회사를 부산시 沙下區 多大洞380으로 移轉함에 따라 電話番號가 29-0161-69로 변경됨.
- 本會 韓榮錫 會長은 지난 5.3 강남구 현대아파트 107동 1108호로 이사, 전화 542-5542
- 本會 理事 大韓製紙 (代表理事 양승학) 전화번호가 453-6352로 變更됨.

訃 音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本會 理事 張永圭 (玉溪製材所) 氏의 母親이 지난 4.20 칠곡군 왜관읍 향리에서 他界하심.
- 本會 鄭淵甲 會員이 지난 4.26 경북 포항시 죽도 이동 자택에서 老患으로 永眠하심.